

“괴물’ 흥행! 나도 어리둥절”



영화감독 봉준호씨 밝혀

“괴물’이 1천600개 스크린 중 600개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만의 독특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괴물’이 620개 스크린을 장악하고 최단기간 관객 6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봉준호 감독이 데뷔작인 ‘플란다스의 개’를 떠올리며 “괴물’의 현재 관객 수에 대해 나도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봉 감독은 7일 오전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와의 생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대박’을 터뜨릴 줄 알았느냐”는 질문에 “연출자의 입장이어서 어떻게 하면 영화를 잘 완성할 수 있을까에만 매달렸기 때문에 사실 예측은 할 수 없었고 현재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크린 3개 중 1개는 ‘괴물’이 독식하고 있어 다른 한국영화의 설 자리를 좁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맞는 말인 것 같다”고 답했다.

“내 데뷔작인 ‘플란다스의 개’도 전국 10만 관객을 동원하고 끝난 흥행 실패작이다. 그런데 ‘괴물’은 개봉 첫날이 아니라 전야제 스코어만으로도 ‘플란다스의 개’ 스코어를 넘어서 버리더라”고 말한 봉 감독은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는 500만 명 정도의 흥행 성공을 했다고 하지만 그거까지만 100일 정도가 걸렸다. 그런데 ‘괴물’은 불과 9일 정도에 500만명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재미동동 코미디언’ 마거릿 조  
美 독서캠페인 모델 발탁

재미동동 여성 코미디언 1호이면서 배우, 저술가인 마거릿 조(38)씨가 미국 독서 캠페인 모델로 발탁됐다.

7일 미국독서협회 홈페이지(www.ala.org)에 따르면 독서광으로 알려진 조씨는 최근 ALA가 주관하는 유명인사 ‘독서(Read)’ 캠페인의 포스터 모델이 됐다.

포스터는 조씨가 책을 가슴에 안고 독자를 흡인하는 듯한 눈매로 쳐다보면서 자신도 독서를 통해 성공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 포스터는 주요 공립도서관에 나뉘었다.

지금까지 포스터에 등장한 인물은 오프라 윈프리를 비롯해 헬리스트 요요미, 가수 브리트니, 농구 선수 사질 오닐, 영화배우 손 코너리, 펠 깁슨, 니콜라스 케이지 등이다.

‘사랑해’ ‘꽃반지 끼고’ 가수 한민 별세



한민(뒤)

별명의 히트곡 ‘사랑해’ ‘꽃반지 끼고’를 부른 통기타 혼성듀오 ‘라나에 로스포’의 남성보컬 한민(본명 박윤기)씨가 6일 오후 9시30분 뇌출혈로 별세했다. 향년 64세.

단국고 1학년 때 처음 기타를 배운 고인은 군복무를 마친 뒤 1968년 서울 종로의 세기음악학원 기타 강사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으며 1970년 같은 음악학원 오르간 강사이자 작곡가인 김학송 씨의 소개로 은희(본명 김은희)를 만나 혼성 듀오 라나에 로스포를 결성, 이듬해 음반을 발표했다.

라나에 로스포는 이탈리아어로 개구리와 두꺼비라는 뜻으로 정부당국의 국어순화운동 방침에 따라 한동안 ‘개구리와 두꺼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한민은 최근 딸 박윤정과 호흡을 맞춰 안양에서 라이브공연을 겸한 레스토랑을 운영해오다 2004년 뇌경색으로 쓰러져 투병생활을 해왔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정임(56) 씨와 딸 박윤정(29) 씨를 뒀다. 연락처 02-831-6699

“퓨전국악 세계가 알아줘서 행복해요”

■ 세계 합창올림픽 금상 광주평화방송 합창단 지휘자 이어진 씨

지난달 중국 사면에서 열린 세계 합창올림픽(The 4th world choir games)에서 금상을 수상한 광주평화방송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 이어진(35)씨는 아이들과 열싸안고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했다. 힘든 상황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따라준 아이들과 함께 했던 9년여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기 때문이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세계 합창올림픽은 2년에 한번씩 유럽과 아시아에서 번갈아 열리는 최대 규모의 합창 대회로 올해는 95개국에서 참가한 2만5천여명이 26개 부문으로 나눠 열린 경연을 펼쳤다.

전통국악과 재즈 어우러진 ‘신 옹헤야’ 선보여

이 씨가 이끄는 평화방송 합창단은 ‘민요연출’ 부문에서 17개 팀과 경연을 펼친 결과 그랑프리를 수상한 크로아티아 공화국에 이어 2등상인 금상을 받았다. 이번 경연에는 70여명의 단원 가운데 35명이 참가했고 고등학생이 된 명예단원들도 함께 호흡을 맞췄다.

“합창제가 여러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지만 무엇보다 자기 나라의 민요를 선보이는 ‘민요연출’ 부문에 대한 관심이 높았어요. 저희 역시 우리 전통 음악을 기본으로 해서 외국인들도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창작곡으로 도전했는데 관객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음악’을 외국인들에게 선보일 수 있어

참 행복했구요. 아이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자 싶었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얼마나 행복하지 모르겠어요.”

평화방송합창단이 선택한 곡은 남부대 신동민 교수가 작곡한 ‘신 옹헤야’. 민요‘옹헤야’를 모티브로 만든 ‘신 옹헤야’는 전통 국악기인 해금과 서양악기인 신디사이저, 베이스 기타, 피아노가 어우러진 창작곡으로 흥겨운 재즈와 삼바 풍의 음악이다.

또 가이금 반주에 맞춘 아카펠라 곡 ‘가시리’(나인영곡)와 슬픈 선율이 돋보이는 합태군의 ‘가시리’도 함께 선보였다.

전남대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광주시립합창단원으로 활동하기도 한 이씨는 평화방송합창단이 창단된 지난 1997년부터 아이들을 지도해 왔다. 오랜 기간 아이들과 함께 노래하며 행복했던 추억들도 많았지만 그만큼 눈물도 흘렸다.

세계무대 뽕뽕 신 아이들 모습, 너무 아름다워

이 씨는 공연을 할 때마다 ‘노래’만 부르지 않았다. 다른 어떤 합창단보다 안무와 율동 등에 신경을 많이 썼고 아이들의 리듬감을 살려주기 위해 과감하게 ‘난타’를 무대에 올리기도 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마다 주변에서 싫은 소리도 많이 들었죠. 하지만 이번 대회에 참가하면서 내가 추구해왔던 게 틀리지 않았구나,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자신감을 갖고 좀 더 멋진 공연을 준비할 겁니다.”



지난 7월 중국에서 열린 세계합창올림픽에서 금상을 수상한 광주평화방송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이어진(뒷줄 왼쪽에서 두번째)씨와 단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 씨는 이번엔 함께 간 아이들이 큰 상을 받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세계 각국에서 참석한 다양한 단체들의 경연과 공연 무대를 보며 음악 안에서 행복해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고 말했다.

광주 평화방송의 ‘평화음악실’ DJ로 호남대 다매체영상학과 ‘뮤지컬 발성’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 씨는 음악에 욕심 많은 자신을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준 남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阿 최고봉 킬리만자로 세계 최연소 등정

‘소년 산악인’ 김영식씨 공군 입대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5천 895m)를 세계 최연소(9세)로 등정했던 김영식(20·사진 왼쪽)씨가 7일 오후 공군에 입대했다.

아버지인 산악인 김태웅(53)씨와 함께 ‘탈보 부자’로 잘 알려진 영식씨는 지난 94년 8살때 알프스 최고봉 마테호른에 오른 이후 ‘소년 산악인’으로 국내외의 이목을 끌었다.

킬리만자로 최연소 등정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고 95년부터 99년까지 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지학사)

에도 소개됐던 그는 지난해 경북대 전자전기컴퓨터학부 05학번으로 입학, 현재 2학기를 마치고 휴학한 상태다.

입대로 인해 목표포 세웠던 세계 7대륙 최고봉 등정은 잠시 미뤄야 하지만 27개월의 복무가 끝난 뒤 아버지와 함께 다시 도전할 계획이다. 현재 이들 부자가 최고봉 등정에 성공한 대륙은 4곳.

95년 아프리카 킬리만자로에 이어 98년 북미 최고봉인 매킨리(6천194m), 99년 유럽 최고봉인 엘브루즈(5천 642m), 2002년 남미 최고봉인 아콩카

구아(6천959m)에 올랐다. 지난해 초 에베레스트 등정의 전초전으로 히말라야 14좌 중 하나인 초오유(8천201m) 등정을 계획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접어야 했지만 이들에게 7대륙 최고봉 등정의 꿈은 아직도 유효하다.

영식씨는 입대 전 “집 근처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았는데 아직 길이가 잘 나지 않는다”면서 “대한민국 남자가라면 누구나 다녀와야 하는 만큼 몸 건강하게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말했다.

유승준, 국내 신인가수 앨범 참여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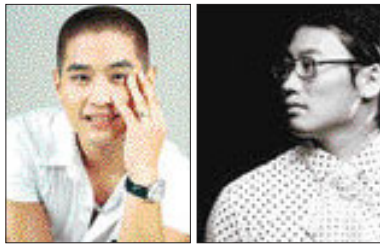
‘한번의 실수로’ 등 심경 토로

가수 유승준(30)이 국내 신인 힙합가수의 음반 제작에 참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획득, 입국이 불허돼 현재 중국에서 활동중인 유승준은 4년 만에 국내 팬들과 노래로 직접 만나게 됐다. 그러나 유승준의 한국 활동에 대한 찬반이 여전히 엇갈리는 상황인어서 그의 국내 가수 음반 참여 역시 파장이 예상된다.

연예계 생활 10년이 다 돼서야 1집을 준비하게 된 유진은 5월경 중국으로 건너가 유승준을 직접 만났다.

당초 유승준은 “지금 내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완곡하게 거절했으



〈유승준〉 〈유진〉

나, “과거 내가 어려운 시절 함께 한 형이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유진의 요청에 흔쾌히 수락했다.

대략 ‘저 기여할까.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그림자. 그 합성이. 한번의 실수로 모든 게 날아가간 내용으로 자신에 대한 자책, 한국과 팬에 대한 그리움 등이 담겨 있다.

이달 말 음반을 출시하는 유진은 파티 형식의 쇼케이스를 연다.

“한국팀 지휘,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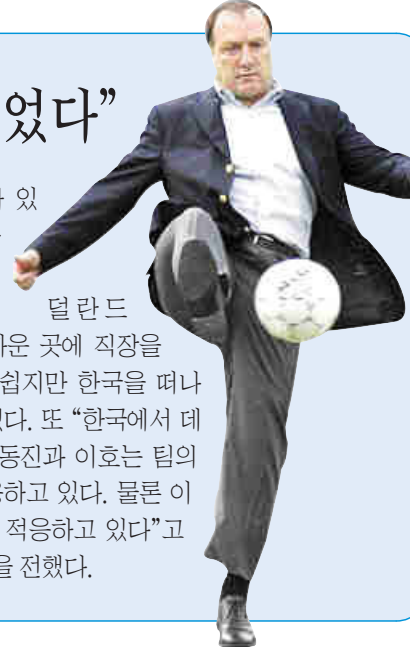
아드보카트 감독, 한국생활 소회 피력

“내 축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시간이었다”

2006 독일월드컵축구대회에서 태극호를 이끌었던 디 아드보카트(59) 제니트 산트 페테르부르크(러시아) 감독이 7일(이하 한국시간) 네덜란드 축구 전문지 ‘풋볼 인터내셔널’과 인터뷰에서 9개월여 한국 대표팀을 지휘했던 감상을 짧게 피력했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대한축구협회는 16강 진출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약 연장 요구를 했었다. 내 자신도 남

고 싶은 의사가 있었다. 하지만 아내가 가능하면 가족이 있는 네덜란드에서 좀 더 가까운 곳에 직장을 찾으라고 해 아쉽지만 한국을 떠나게 됐다”고 말했다. 또 “한국에서 데려온 용병인 김동진과 이호는 팀의 기대에 잘 부응하고 있다. 물론 이곳 생활에도 잘 적응하고 있다”고 두 선수의 소식을 전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알림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변호사 공제원 법률사무소 토요 무료법률상담=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사무실 223-2100
▲비틀기가정폭력상담소 무료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각종 상담, 직접 상담은 전화나 메일로 사전예약 매주 목·금요일. 652-1366, nam939@dreamwiz.com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fj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낮 12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점심 제공)
▲광주대 평생교육원 자연법칙 지리통수학 무료 시민 공개 강의=

- 19일(토), 26일(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주대 중앙도서관 5층. 장묘법, 음·양학, 수백, 유산목 등 소개. 011-609-8117
▲장악외 지리통수학회 무료 공개 강좌=19일(토) 장흥군 사회복지관.26일(토) 호남대 상촌캠퍼스. 오후 2시부터 6시. 풍수지리 천년의 하와일 영상 강의 등.011-608-4088
동창·문론회
▲송원고 총동창회 기별 회창단 월례회=9일(수) 오후 7시 상무지구 구항동 숭불갈비. 010-7212-0085
▲담양 한재중 17회 동창회 창립 총회=13일(월) 오전 10시30분 담양 한재중.
▲광주 효동초교 32회 동창회 월례회=16일(수) 오후 8시 우산동 화니공로물 삼점식.523-2550

- ▲순창 금과초 제 41회 동창회(회장 김형우) 모임=19일(토) 오후 5시 강천사 약수산장.011-680-6075
모집
▲금호교육문화회관 제 22기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어학·교양·음악·컴퓨터·서화·국악 등 39개 강좌 수강생 모집. 접수는 25일까지. 문의 360-6631~6.
▲공인중개사 일본 선진지 견학 참가자 모집=광주·전남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9월6일부터 10일까지 4박 5일 일정. 선착순 30명. 참가비 56만원. 참가신청 및 문의의 대한 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 062-384-7772
▲사진회원 모집=사진 촬영에 관심이 있는 자로 매일 첫째 주 일요일 정기 현장 촬영. 010-3638-0289
▲동문철학원 역리철학 수강생

- ▲월산동 성당 자원봉사자 모집=독거노인 방문 각종 봉사 활동 참여 모집. 월산동 성당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369-7005
▲청수 조기 축구회 회원모집=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전7시부터 수창초 운동장 017-612-7695
▲광주동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중학교 1~2학년 대상. 숙제 지도·보충심화학습·문화·예술·스포츠, 부모 간담회, 가족캠프, 무료급식, 건강관리, 생활일정관리, 학기중 평일 오후 4시~밤10시까지 운영 225-7224
▲초·중·고 과정 무료 학생·교사 모집=월~금요일 오후 7시~10시 30분 광주시 동구 계림동 사랑의 교실, 교사 모집(국어·영어·과학·사회·도덕 과정) 223-8529, 011-9712-4316
▲한국문화센터서광주지부(원장 정혜영) 회원 모집=홀패션·커튼·퀵트·개량한복·손뜨개·꽃꽂이·아동미술·포크아트·가족공예 등. 광주시 서구 내방동 구 신화대 사거리

- 지하철 상촌역 4번 출구 375-7178, 011-640-2559
▲우리겨레하나되기 광주전남은동본부 회원 모집=동일 쌀 보내기와 못자리용 비닐 보내기 등 남북교류 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분 431-0035
▲천도교 광주교구 시일식 봉행=매주 일요일 오전11시 광주교당, 천도교 교인 및 동화에 관심있는 분 525-1391
▲인우회 회원모집=광주지역 전·의경 전역자들의 모임, 총무 011-606-7789
▲불림 동호회 ‘다이아몬드’ 회원모집=30세 이상 부부, 매일 첫째 셋째 금요일 011-607-0347

- 부음
▲임필호씨 별세 영선·홍구·기정·재현·숙현·진이씨 부친상 김교현·김두천·나형남씨 부부상=발인 9일(수) 그린장례식장 10분향소. 250-4410
▲김복숙씨 별세 방원·춘원·광철·성철·광례·점하·영자·옥자씨 부친상 김병탁·김진우씨 부부상=발인 9일(수) 그린장례식장 5분향소. 250-4405
▲이은영씨 별세 김선재·영재·민재·성재·혜숙씨 모친상 홍영표·양덕환씨 부모상=발인 9일(수) 그린장례식장 12분향소. 250-4412

넓고 편안한 무등장례식장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구 호천)
대표:(062)515-4488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가족납골묘특별분양
☎(062)521-1100